

2015 국가직 9급 국어(사책형)

1	2	3	4	5	6	7	8	9	10
③	③	②	②	③	③	①	③	③	④
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①	④	②	④	②	①	①	④	④	④

1. [어법-한글맞춤법, 어미의 정확한 사용]

정답: ③

해설: ‘-던’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그 쓰임이 적절하다. ‘-대’는 ‘-다고 해’의 준말로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이고, ‘-데’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‘-더라’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인다.

오답 풀이

① 간데요 → 간대요. 화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므로 어미 ‘-대’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.

② 잘하대 → 잘하데. 화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어미 ‘-데’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.

④ 크대요 → 크데요. 화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어미 ‘-데’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.

2. [어법-한글맞춤법, 띄어쓰기]

정답: ③

해설: ‘대로’는 용언의 관형형 뒤에서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.

오답 풀이

① 도외시 하였기 → 도외시하였기. ‘도외시하다’는 ‘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하다.’라는 의미의 한 단어로 붙여 써야 한다.

② 대리전으로 밖에는 → 대리전으로밖에는. ‘밖에는’은 조사 ‘밖에’에 보조사 ‘는’이 결합한 것이다. ‘밖에’가 ‘그것 말고는’, ‘그것 이외에는’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.

④ 회복될 지 → 회복될지.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을 의미할 때 ‘지’는 어미의 일부로 붙여 써야 한다.

3. [어법-한글맞춤법, 조사의 올바른 쓰임]

정답: ②

해설: 참가 신청자에게 →참가 신청자에. ‘한하다’는 ‘조건, 범위에 국한되다.’라는 뜻으로 ‘-에 한하다’의 형태로 쓰인다.

오답 풀이

① 설계도에서: ‘에서’가 출처를 의미하는 조사로 쓰였다.

③ 관리 사무소에: ‘에’가 처소를 의미하는 조사로 쓰였다.

④ 규정에도: ‘에도’는 조사 ‘에’에 보조사 ‘도’가 결합한 것이다. ‘불구하고’는 ‘-에도/-음에도 불구하고’의 형태로 쓰인다.

4. [어휘-인문, 내용에 맞는 한자 성어 적용하기]

정답: ②

해설: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는 ‘문제의 핵심’이 아니라 ‘지엽적이고’, ‘시시콜콜한 문제’를 ‘트집’ 잡거나 ‘확대’하는 것이다. 따라서 ‘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뒤바뀐.’이라는 의미의 ‘본말전도(本末顛倒)’가 적절하다.

오답 풀이

① 격물치지(格物致知):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.

③ 유명무실(有名無實):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.

④ 돈오점수(頓悟漸修): 문득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기까지에는 반드시 점진적인 수행 단계가 따름.

5. [비문학-인문, 단락 전개 순서 파악하기]

정답: ③

해설: ㄱ은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‘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.’는 원인이 제시된 ㄷ 뒤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. ㄴ은 밤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아지면서 생긴 단점으로 ㄱ 뒤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. ㄹ은 ㄷ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ㄷ 앞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. 따라서 ㄷ-ㄷ-ㄱ-ㄴ순으로 내용이 배치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.

6. [작문-조건에 맞추어 표현하기]

정답: ③

해설: ‘리더십’이란 ‘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.’을 뜻한다. ③에서 ‘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 버리’는 것은 무리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의 능력이 모자라 정책이 잘못 설정되는 내용과 연결되므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.

오답풀이

① 사공이 많다는 것은 리더가 여러 명이라는 상황과 대응되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②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리더십이 뛰어난 경우와 대응되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④ 길잡이의 올바른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리더십의 부재와는 관련이 없다.

7. [비문학-예술, 사실 일치 파악하기]

정답: ①

해설: 지문에서 ‘사물놀이의 가치’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.

오답 풀이

② 2단락의 ‘천둥이나 번개~소리라는 것이다.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③ 1단락의 ‘사물놀이는~말한다.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④ 2단락의 ‘사물놀이는~한다.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8. [비문학-언어, 사실 일치 파악하기]

정답: ③

해설: ③의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. 오히려 ‘직접 발화’에서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므로, 이것이 화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간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.

오답 풀이

① 1단락의 ‘글의~발화이다.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② 2단락의 ‘일상~파악된다.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④ 3단락의 ‘남에게~한다.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9. [문학-고전 수필,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]

정답: ③

해설: ‘남의 물건’과 ‘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’에 대한 마음가짐의 유사성이 일부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 특성이 설명되고 있지는 않다.

오답 풀이

①, ④ 글쓴이는 말을 빌려 타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 소유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. 또한 이를 통해 ‘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’에 대한 마음도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.

② ‘우의적 기법’이란 ‘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’을 뜻한다. 이 글에서는 ‘소유한 것에 대한 마음가짐’을 말을 빌려 타는 경험이라는 다른 상황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므로 우의적 기법이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.

10. [비문학-인문,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]

정답: ④

해설: 지문에서는 ‘진리’, ‘정의’ 등의 ‘이론’을 거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‘법과 제도’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. 하나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속성이 다른 대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론하는 ‘유추’의 방식이 쓰인 것이다. ④ 역시 ‘여행’의 속성이 ‘인생’에서도 비슷하다고 함으로써 ‘유추’의 방식을 쓰고 있다.

오답 풀이

① 연역법, 3단 논법.

② 대조.

③ 귀납법.

11. [어법-한글맞춤법, 어휘의 정확한 표기]

정답: ①

해설: 처주마 → 처주마. ‘셈을 맞추어 주다.’라는 의미로 ‘처주다’의 활용형인 ‘처주마’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.

오답 풀이

② 처지다: 감정, 기분 따위가 바닥으로 잠겨 가라앉다.

③ 처대다: 함부로 불에 대어서 살라 버리다.

④ 처박히다: 매우 세게 박히다.

12. [어법-형태론, 본용언과 보조 용언 구별하기]

정답: ④

해설: ‘보인다’는 ‘대상을 평가하다’라는 의미의 ‘보다’의 피동사로 원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본용언이다.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면서 원래 문장에 쓰인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면 본용언이다.

오답 풀이

- ① 온다: 상태의 진행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.
- ② 버렸다: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.
- ③ 주었다: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.

13. [어휘-어휘 간의 관계 파악하기]

정답: ②

해설: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반의 관계이다. ‘사고’는 ‘생각하고 궁리함.’을, ‘비판’은 ‘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.’을 뜻한다.

오답풀이

- ① • 분분: 소문, 의견 따위가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음.
- 합치: 의견이나 주장 따위가 서로 맞아 일치함.
- ③ • 겸손: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음.
- 오만: 태도, 행동이 건방지고 거만함.
- ④ • 결미: 글이나 문서 따위의 끝 부분.
- 모두: 말이나 글의 첫머리.

14. [어휘-한자 성어의 문맥적 사용]

정답: ④

해설: ‘연목구어(緣木求魚)’는 ‘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.’는 뜻으로 ‘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할 때’ 쓰는 한자 성어이다.

오답 풀이

- ① 좌고우면(左顧右盼): 앞뒤를 재고 망설임.
- ② 암중모색(暗中摸索): 어림으로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려 함.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으려 함.
- ③ 침소봉대(針小棒大):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.

15. [문학-고전 시가,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]

정답: ②

해설: 이 작품은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는 작품으로 ‘눈비’는 시적 화자가 겪는 시련과 고통을 의미한다.

오답 풀이

- ① ‘베옷’은 화자의 가난한 생활을 뜻한다.
- ③ ‘서산’은 해가 지는 곳, 즉 임금이 죽은 곳을 의미하므로,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된다.
- ④ 임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‘눈물’로 직접 표출되고 있다.

16. [어법-형태론, 단어 형성 방식 파악하기]

정답: ①

해설: ‘고추장’은 ‘고추+장’, ‘놀이터’는 ‘놀이+터’, ‘손짓’은 ‘손+짓’, ‘장군감’은 ‘장군+감’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실질적 의미를 지닌 요소, 즉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이다.

오답 풀이

- ② 면도칼: 면도(어근)+칼(어근) → 합성어, 서릿발: 서리(어근)+발(접미사) → 파생어, 원둥이: 원(어근)+둥이(접미사) → 파생어, 장난기: 장난(어근)+기(접미사) → 파생어.
- ③ 깎두기 → 단일어, 선생님: 선생(어근)+님(접미사) → 파생어, 작은형: 작은(어근)+형(어근) → 합성어, 핫바지: 핫(접두사)+바지(어근) → 파생어.
- ④ 김치찌개: 김치(어근)+찌개(어근) → 합성어, 돌다리: 돌(어근)+다리(어근) → 합성어, 시나브로 → 단일어, 암탉: 암(접두사)+닭(어근) → 파생어.

17. [비문학-인문,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]

정답: ①

해설: 지문에서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‘위험’, ‘불확실성’, ‘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’ 등으로 설명하면서 ‘인문학’이 ‘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’고 주장하고 있다.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.

오답 풀이

- ②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드러나지만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.
- ③ 이 글에서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분석하기보다는 인문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.

18. [작문-자료를 활용하여 글감 생성하기]

정답: ④

해설: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.

오답 풀이

① ‘다양한 정보의 습득’과 연결된다.

②, ③ ‘욕설, 비방, 허위 사실 유포’, ‘개인 정보 유출’, ‘저작권 침해’ 등과 연결된다.

19. [문학-현대 시, 조건에 따라 감상하기]

정답: ④

해설: 시적 화자는 추운 밤, 잠에서 깨어 북쪽에 있는 고향과 그곳의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. 화자의 절망감은 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.

20. [문학-현대 수필, 소재의 문맥적 의미와 관계 파악하기]

정답: ④

해설: 지문의 ‘액자’는 ‘그림’의 속성을 규정하는 데 작용하는 형식이다. ④의 ‘웃차림’ 역시 ‘내면’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, 내면을 규정하는 데 작용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.

오답 풀이

① 결과와 원인의 관계.

② 대상과 대상을 재발견한 것의 관계.

③ 전체와 부분의 관계. 혹은 작용 대상과 작용 수단의 관계.